

호남대-광주대 ‘글로벌 공유 산학협력’ 모델 구축 박차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코비코 방문
맞춤형 인재양성 등 협력방안 논의
연합형 협력체제로 기업성장 도모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추진도

올해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마지막 선정을 앞두고 도전장을 내민 호남대학교와 광주대학교가 ‘글로벌 공유 산학협력’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호남대에 따르면 호남대와 광주대는 지난 12일 오전 군수차량·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코비코를 방문해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재양성과 기술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대학 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공유 기반으로 통합 운영하려는 ‘글로벌 공유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호남대에서 박상철 총장, 김덕모 대학원장, 손완이 국제교류처장, 정재평 산학협력단장, 이은경 산학협력부단장, 손병래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 김규하 교수, 광주대에서는 김동진 총장, 최재완 공과대학장, 노석식 산학협력단장, 신준우 호심취창업지원단장, 최재혁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코비코에서는 조광철 대표이사, 모수환 노

조위원장, 조준영 부사장, 오기호 공장장, 김영권 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 대학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평동2공장 생산라인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광철 코비코 대표이사는 “에너지 자립형 생산환경 구축, 정부지원 연계 기술 고도화,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 체계 강화 등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기술과 인재를 함께 키워나가는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호남대와 광주대와 같은 지역 대학들과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형 인재 양성과 첨단 기술 개발을 함께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호남대와 광주대가 함께하는 공유 산학협력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연합 인재양성, 핵심 R&D기술의 대학간 협력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며 “현장 맞춤형 기술이전, 산학 공동 프로젝트, 청년 취업 연계 모델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유 산학협력은 대학 간 전문 인력과 자원을 공동 활용하며 공동 연구개발, 현장실습, 인턴십,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고도화된 지역 협업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다”며 “특히 개별 대학 단위의 산학협력을 넘어선 ‘연합형 협력체제’로, 지역 기업의 성장과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이다”고 덧붙였다.



호남대와 광주대는 지난 12일 군수차량·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코비코를 방문해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재양성과 기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이번 코비코 방문은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과 함께 산학협력을 실현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호남대와 함께 추진하는 공유 산학협력은 지역 대학의 공동 도약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

재양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대학은 앞으로 ‘Global Campus 연합 모델’ 확산을 위해 기업수요형 계약학과 추진, 공동 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역 산단과의 연계사업 확대,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코비코 방문은 RISE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17번째 기업 방문으로, 대학-산업-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현실화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최환준 기자

조선대, 글로벌대학30 선정 응원 디지털 캠페인

장미원서 지역사회 염원 결집

조선대학교가 올해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염원과 의지를 결집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조선대는 ‘2025 장미주간’을 맞아 글로벌대학30 선정을 응원하는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시민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글로벌대학’ 사업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시민들은 조선대 장미원에서 ‘조선대의 글로벌대학 선정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 응원 장면은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돼 조선대 공식 SNS, 홈페이지, 교내 포털 등에 공개돼 지역사회와의 지지와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과 함께 미래대학을 설계하고자 하는 조선대의 전략을 보여준다.

조선대는 현재 초고령사회 대응형 ‘웰에이징 Asia NO.1 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워 바이오메



디, 에이지테크, 라이프케어 등을 아우르는 3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노인성 질환 관련 임상 빅데이터와 AI 기반 디지털 헬스 실증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복지·고령화 문제 해결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장미주간에는 RISE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이노업(INNO-UP) 전략을 실현했다.

대학은 장미원 일대에 지역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캠퍼스 인프라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대-GIST-에너지공대, AI 협력으로 지역소멸 대응

광주형 리서치 트라이앵글 구축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AI 기반 지역혁신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대는 최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와 ‘글로벌대학30을 활용한 지역 혁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

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중심으로 세 대학이 협력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AI 융합 초하계 연구를 통해 지역 혁신을 선도하자는 공동 목표에서 비롯됐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융합 광주형 리서치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국가 전략사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인재 양성, 지역 산업 혁신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대학30 사업 공동 추진 및 지역혁신 협력 강화 △광

주·전남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파트너십 구축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 공유와 거점 교육·연구기관 역할 수행 △광주·전남 지역 신산업 분야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창업 교육, 오픈이노베이션, 기업 성장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취·창업 활성화 노력 등이다.

세 대학은 지난 3월부터 협약 체계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

최환준 기자

동신대 스포츠의학과, 워크숍서 운동검사 등 시연

동신대학교 스포츠의학과가 최근 투계터홀에서 ‘2025 춘계 동신대 스포츠의학과 워크숍’을 개최해 스포츠의학 분야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13일 동신대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미래 스포츠의학 전문가를 꿈꾸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 실무 역량을 소개하고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한편 대학 간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동신대 스포츠의학과를 비롯해 광주대 스포츠과학부, 동국대 스포츠건강과학부 교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 130여명이 참여해 스포츠의학 분야 전문 역량을 다졌다.

워크숍에서는 무릎, 발목, 어깨 및 척추와 관

련된 선수의 운동학적 관리에 대한 강연과 실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운동 손상 평가 및 운동 재활 실습 세션이 더해져 인기를 끌었다.

한편 동신대 스포츠의학과는 ACSM(미국스포츠의학회) 공식 인증 호남지역 자격연수원을 운영 중이며,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운동 생활 실현을 위해 캠퍼스 내 ‘국민체력100 나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에도 공헌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최고의 품질로 교체 시공하는
광주활성탄이 함께 하겠습니다



활성탄·각종필터 전문회사

(주) 광주활성탄

수질분야

대기분야

- 입상, 분말, 성형 활성탄 제조전문업체
- 각종 필터, 이온교환수지, 복합여과제 전문

T E L. 062) 361-9300. 9400
Mobile. 010-4660-7700
E-mail. kjcarbon@hanmail.net